

#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1~2030)

## - 축산 및 사료를 중심으로-

허 덕\*, 김태런\*\*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1년 4월 20일 및 21일 중국 농업전망 대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농업을 내다보는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1~2030)」를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2014년부터 개최되었는데, 이번에는 2020년 총괄분석과 함께 2030년까지 농축수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전망이 보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1~2030)」 중 축산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쇠고기, 유제품, 돼지고기, 닭고기와 더불어 사료 관련 전망에 대해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 중 환율 환산에 있어 1위안=17.5엔=175원(2021년 6월 말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였다.

## 1. 쇠고기<sup>1)</sup>

### 1.1. 2020년 동향

2020년 생산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영향<sup>2)</sup>을 받았다. 2020년 초반에는 쇠고기 생산량이 전년을 밀돌았지만, 서서히 반등하여 2020년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0.8% 늘어난 672만 톤으로 조금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1).

소비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 돼지고기에서 쇠고기로의 대체 수요 등으로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884만 톤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태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海外情報-「畜産の情報」2021年 8月号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特集：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中国牛肉産業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2021년 2월호([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6.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6.html))를 참조하기 바란다.

중국에서도 쇠고기 구입형태에 있어 온라인 구입과 조리된 상태의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요 고조 등 소비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밀돌아 자국산 쇠고기 가격은 상승하였다고는 하지만, 사료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소득은 연간 평균치로 보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1〉 쇠고기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만 톤, kg/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30년	
					전망치	전년대비 증감율	전망치	2020년대 비증감율
생산량	635	644	667	672	684	1.8	790	17.6
수입량	70	104	166	211.83	215	1.5	240	13.3
소비량	705	748	833	884	899	1.7	1,030	16.5
1인당 소비량	5.1	5.4	6.0	6.29	6.38	1.4	7.12	13.2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1-2030」, 「농업전망보고 2020-2029」를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海外情報-「畜産の情報」2021年 8月号에서 재인용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계속 크게 증가하여 동 27.7% 늘어난 211만 8,300톤이 되었다. 수입 대상국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량의 40% 정도를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으나, 러시아 등 새로운 수입 대상국도 참여하였다.

또 미·중 경제무역 협정 제1단계 합의<sup>3)</sup>에 따라 미국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수입 제품에 부과되던 월령 제한(30개월령 이상만 수입 가능)이 철폐되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한 장벽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 1.2. 2021년 전망

2021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684만 톤으로 전망된다. 번식 암소 증두(増頭)와 품종개량, 방역조치 등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1마리당 생체중 증가 는 물론 사육 마릿수 증가도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쇠고기 소비량은 코로나19 수습에 따라 외식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동 1.7% 늘어난 899만 톤으로 전망된다.

3)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中經濟貿易協定第1段階合意の進捗に関する中間報告(米国)’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1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11.html)) 를 참조하기 바란다.

쇠고기 가격은 돼지고기 대체 소비로 인한 영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에 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하고, 사료와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으로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쇠고기 수입량은 국내 공급이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산보다 수입 쇠고기 가격이 낮다는 점에서 동 1.5% 늘어난 215만 톤으로 전망된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sup>4)</sup>) 정책에 따른 쇠고기와 생우 무역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1.3. 2030년까지의 전망

2030년까지의 쇠고기 생산량 전망에 대해 알아보면,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2030년에는 7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의 자원 이용 추진, 스마트 농업 추진 등으로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근대화된 축산으로 발전하여 쇠고기 생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4) 일대일로란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로드맵은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① 정책 소통(政策沟通), ②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③ 무역 확대(贸易畅通), ④ 자금 조달(资金融通), ⑤ 민심 상통(民心相通) 등 5대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책 소통’은 정치적 신뢰 및 부처 간 실무적 협력에 따른 충분한 교류와 수렴을 통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 간의 발전전략을 조정하는 것이다. ‘인프라 연결’은 자원 확보 및 주요 거점별 육로, 수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간 산업 및 영역별 표준이 상이한 기초설비 건설과 기술표준화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환경까지 고려해 친환경적인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역 원활화’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가 간 무역·투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원스톱(One-Stop) 전자통관 시스템 및 공동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해 다양한 형태의 규범을 마련해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자금 융통’은 아시아 통화 안정을 위한 금융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AIIB5), ADB6), BRICs7) 등)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심 상통’은 사회적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 문화교류, 학술교류, 문화, 관광, 과학기술분야 등 전면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2017년 8월 ‘일대일로 건설 추진 공작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8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즉, 첫째, ‘해외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유라는 원칙을 지킨다. 또한 중점 지역·국가·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평등·호혜공영을 실현한다. 둘째, ‘일대일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실을 다진다.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자원 개발, 산업협력 개발, 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 등 전략적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셋째, 육상·해상, 국내·외, 정부·민간기업 간 ‘통합과 조율을 위한 능력을 강화’한다. 넷째, ‘핵심 프로젝트를 이행’해 인프라·경제·무역 등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국가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금융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다양한 금융플랫폼을 구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여섯째, ‘인문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학습을 추진한다. 일곱째, 일대일로 건설 성과에 대한 ‘홍보 확대’로 관련 학술·연구 및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논의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여덟째, ‘안전 보장 능력 제고’를 위해 안보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긴급 상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세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고정오, <https://terms.naver.com/>)

2030년까지의 쇠고기 소비량 전망에 대해 보면, 인구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쇠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2030년에는 1,0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망 기간 중의 후기(2025년 이후)에는 고령화에 의해(2030년에는 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이 25% 안팎으로 전망) 소비량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쇠고기 가격도 전망 기간 중 후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쇠고기 수입량에 대해 보면, 여전히 국내외 가격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내 공급력 성장을 고려하면 수입 증가는 완만하게 되어 2030년에는 24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 서명한 지역적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CEP) 협정<sup>5)</sup> 등이 수입 상대국의 확대와 무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유제품<sup>6)</sup>

### 2.1. 2020년 동향

2020년 원유(原乳) 생산량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3,546만 톤으로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이처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낙농업 활성화에 따라 젖소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였음은 물론, 1마리당 산유량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그 결과, 소 유래 원유 생산량이 동 7.5% 늘어난 3,440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우유 소비량은 유제품이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분위기 확산으로 소비 습관이 양성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자극으로 1인당 소비량은 동 7.9% 늘어난 38.11kg, 전체로는 동 8.4% 늘어난 5,354만 톤(모두 원유 환산 수량. 이하 같다)으로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유는 상온 유통이 주류이다. 하지만, 콜드체인 정비 등으로 냉장유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등 소비구조 변화가 보고되어 있다.

가격 측면에서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원유의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유업회사의 재고 과다로 원유 가격이 하락하였다.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의 코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진행했으나,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2019년 11월 4일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의회 비준하면 60일 후 RCEP가 발효된다. 한편, RCEP가 체결되면서 인구(22억 6000만 명·29.9%), 무역규모(5조 4,000억 달러·28.7%), 명목 국내총생산(26조 3,000억 달러·30%) 등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는 명목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규모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6)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乳製品編)(中国)’ 2021년 7월 12일자 게시 자료([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94.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94.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로나19 완화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연평균 원유 가격 및 시유(市乳) 소매가격이 함께 상승하였다.

수입량은 자국산 육아용 조제분유 수요 증가, 양돈업계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급속한 회복으로 인해 사료 수요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써 유장분말 수입이 동 38.2% 증가한 62.64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유제품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여 동 10.4% 늘어난 1,823만 톤(원유 환산 수량. 이하 같음)으로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다.

## 2.2. 2021년 전망

2021년 원유 생산량은 낙농업의 지속적인 진흥을 배경으로 각지에서 낙농장 건설이 추진되어 전년 대비 1.3% 늘어난 3,591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낙농가의 대규모화를 낙농업 발전의 주요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대규모 농가(젖소 사육마릿수 100마리 이상. 이하 같음)의 비율은 68.0%, 젖소 1마리당 연간 유량은 8.8톤으로 예상된다.<sup>7)</sup>

소비량은 유제품에 대한 이해가 조성되고 있어 동 2.0% 늘어난 5,462만 톤으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원유 가격은 소비량 증가와 사료 가격 폭등 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원유 생산량 증가와 소비자의 국산에 대한 지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하지만, 원유 공급 부족 추세가 조만간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동 3.5% 늘어난 1,886만 톤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이다.

## 2.3. 2030년까지의 전망

원유 생산량은 낙농업 진흥이 계속되어 전망 기간 중의 후기(2025년 이후)에는 기계화, 정보화, 스마트 농업화가 진전되어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0.9% 증가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2.3%로 증가하면서, 4,389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대규모 농가 비중은 80%에 이르며, 젖소 1마리당 유량은 10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유 소비량은 건강에 대한 의식 고조 등과 소비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특히 전망 기간 중의 후기에는 냉장 우유나 치즈 등의 소비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년에는 6,93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7) 2020년 10월에 공표된 중국 유업협회가 발행한, 「중국 유업 품질보고서(2020)」에 따르면, 2019년 대규모 농가 비중은 64.0%, 1마리당 유량은 7.8톤이다.

원유 가격은 왕성한 소비와 생산 비용 증가, 낙농업 진흥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변화하면서도 높지만 안정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지만, 국산 유제품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9.9% 증가를 밀도는 연평균 3.5% 증가로 움직일 것으로 보아, 2030년에는 2,56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들은 계속적으로 뉴질랜드, 호주, EU로 예측하고 있다.

〈표 2〉 유제품 수급동향 및 전망

(만 톤, kg/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2030년(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원유생산량	3,149	3,177	3,305	3,546	3,591	1.3	4,389	23.8
그 중 소에 의한 생산량	3,039	3,075	3,201	3,440	-	-	-	-
수입량	1,461	1,559	1,660	1,823	1,886	3.5	2,563	40.6
소비량	4,109	4,264	4,949	5,354	5,462	2.0	6,933	29.5
1인당소비량	29.6	30.6	35.4	38.11	38.74	1.7	47.60	25.7

주 1: ‘유제품’에는 우유 외에 양유와 야크유를 원료로 한 제품 포함.

2: ‘수입량’ 및 ‘소비량’은 원유 환산 수치.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29」, 「농업전망보고 2019-2028」, 「농업전망보고 2017-2026」을 기초로 일본의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乳製品編)(中国)’ 2021년 7월 12일에서 재인용

### 3. 돼지고기<sup>8)</sup>

#### 3.1. 2020년 동향

2020년 생산량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도축 마릿수가 줄어들었고(전년 대비 3.2% 감소: 5억 2,700만 마리), 돼지 사육 마릿수는 확대<sup>9)</sup>되어 제3분기 들어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전년 대비 3.3% 줄어든 4,113만 톤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8)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豚肉編)(中国)’ 2021년 7월 6일자 게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86.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86.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경영에 여력이 없는 농가가 감소하고 대기업의 인테그레이션이 더욱 진전 되었으며, 최근 지방 정부와 이들 기업이 연계하여 농장을 신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돼지 증두에 대해서는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런,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중국 양돈업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4호(2021년 8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히 이 자료의 <표 6>에는 최근 거대 인테그레이션화 된 양돈장 출현에 관하여 정리되어 있다.

소비량은 동 2.0% 늘어난 4,545만 톤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상반기는 전년 동기대비 약 30% 감소하였지만,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한 데다 학교나 직장 재개 등에 따라 수요가 회복되어 연중으로 보면 전년을 웃돌았다.

가격 면에서는 생체 돼지가 동 60.2% 오른 1킬로그램 당 33.9위안(593엔, 5,930원: 1위안=17.5엔=175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 등으로 크게 오른 것을 배경으로 돼지고기도 동 55.3% 오른 동 52.4위안(917엔, 9,170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양돈업의 수익 지표 중 하나인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사료가격 비율은 14.8:1로 기존 최고의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량은 국내 공급량 감소로 크게 증가하여 동 108% 늘어난 439만 톤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특히 12월에는 44만 100톤으로 월별 수입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주요 수입국은 스페인, 미국, 브라질, 독일 등이다.

### 3.2. 2021년 전망

2021년 생산량은 총 사육 마릿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전년 대비 19.8% 늘어난 4,927만 톤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생산 회복에 따른 대폭적인 회복이 예상되어 동 16.5% 늘어난 5,297만 톤으로 전망된다.

소득 수준 향상과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저열량-고단백질과 같은 음식에 대한 건강 지향 의식 고조 등 식육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육류 소비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닭고기 소비량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소비량 비율은 하락세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소비량 비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 전에는 약 63%였지만, 생산 회복 후에는 약 6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면에서는 비싸게 머물던 생체 돼지 및 돼지 가격이 모두 생산 증가에 따라 하락이 전망된다. 특히 수요기인 춘절(春節<sup>10</sup>) 이후 생체 돼지 가격은 1킬로그램 당

10)춘절(春節, Chinese New year). 매년 음력 1월 1일을 중심으로 치르는 중국 문화권의 새해맞이 명절이다. 춘절(春節)은 4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새해맞이 명절이자 봄맞이 축제로 중국을 비롯한 중국 문화권의 가장 성대한 명절이다. 오랜 옛날 한 해의 농사를 갈무리하며 하늘과 조상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새해의 풍작과 행복을 기원하던 행사에서 유래했다.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춘절 당일이며, 중국 풍속으로는 음력 12월 23일부터 다음 해 음력 1월 15일 원소절(元宵節)까지 명절 분위기가 이어진다. 약 3주의 기간 가운데 설날 그믐날과 정월 초하루가 춘절의 정점에 해당한다.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설날그믐에는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만두를 빚고 닥섬, 생선과 두부 요리, 술 등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눠 먹는다. 자정이 되면 전국에서 액운을 쫓는 의미가 깊은 대규모 폭죽 놀이가 벌어져 명절 분위기가 절정에 이른다. 춘절 당일에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은 웃어른께 세배를 드린 뒤 빨간색 봉투에 담긴 세뱃돈을 받는다. 중국의 국가 지정 공휴일은 3일이며 지방에 따라 열흘에서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쉬기도 한다. 음력 1월 1일이 춘절로 고정된 것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다. 중화민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기존의 음력을 폐지하고 그레고리력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설도 양력 1월 1일로 정해졌다. 이때부터 원단은 음력이 아닌 양력 1월 1일을 의미하게 됐고, 전통적으로 설 명절을 치르던 음력 1월 1일은 ‘봄 축제’라는 뜻의 춘절(春節)로 바뀌었다. 한때는 음력 설을 치르는 것을 금하기도 했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춘절에 설 명절을 지냈으며, 1934년에는 음력 폐지 조치가 철회됐다. 전통적으로 춘절 기간은 음력 12월 23일에 시작해 새해의 음력 1월 15일 원소절까지 거의 한 달간 지속된다. 춘절을 전후한 시기에는 특정한 날마다 지키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 예를 들

20~36위안(350~630엔, 3,500~6,300원)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생산 증가에 따라 2021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동 13.4% 감소한 380만 톤으로 전망된다.

### 3.3. 2030년까지의 전망

생산량은 전반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확산의 영향에서 회복되고, 후반은 비교적 안정되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2022년 생산량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기 이전 수준인 5,402만 톤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30년에는 5,998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 돼지고기 수급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2030년 (전망)	전년대비
						증감율		증감율
생산량	5,452	5,404	4,255	4,113	4,927	19.8	5,998	0.2
수입량	122	119	199	439	380	- 13.4	118	3.5
소비량	-	-	4,456	4,545	5,297	16.5	6,098	0.3
1인당소비량	-	39.6	(31.6)	(32.4)	37.6	16.1	42.1	0.1

주 1: 수입량에는 부스러기گو기를 포함하지 않음.

2: 2019, 2020년의 1인당 소비량은 농축산업진흥기구 시산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1-2030」을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豚肉編)(中国)’  
2021년 7월 6일에서 재인용

어 음력 12월 8일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8가지 곡식으로 만든 납팔죽(臘八粥)을 끓여 먹는 다. 그리고 춘절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음력 12월 23일은 부뚜막을 지키는 조왕신(索王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이날 사람들은 부엌에 조왕신의 신상을 놓고 엿을 바치는데, 단 것을 먹 은 조왕신이 하늘의 상제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오늘날 춘절에 관 련된 행사가 많이 줄고 있다고는 해도 중국 곳곳에서 여전히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 국에서는 선달 그믐날 밤에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즐긴다. 중국의 춘절 요리는 지방마다 다르지 만, 만두(饅頭), 팥빵인 두포(豆泡), 떡의 일종인 연고(年糰), 끼니 사이에 먹는 간단한 식사인 덩섬 (點心), 두부(豆腐), 찹쌀로 만든 간식 미화당(美花糖) 등이 공통적으로 장만하는 대표 음식이다. 남 방에서는 한 끼 식사에 보통 십여 가지 요리가 오르고, 두부와 생선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중국어 에서 두부의 부(腐)와 물고기의 어(漁)가 재물이 넉넉함을 뜻하는 부유(富裕)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 이다. 또 연고(年糰)라는 떡을 상에 올리는데 연고의 발음이 연고(年高)와 같아 새해에 발전이 있으 리라는 기원을 상징한다고 한다. 북방에서는 그믐날 저녁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 빛은 교자(餃子)를 먹는다. 중국에서는 본래 소를 넣지 않고 찐 떡을 만두, 소를 넣어 찐 것을 교자라 불렀다고 한다. 교자의 ‘교’(餃)는 교체를 나타내는 교(交)와 발음이 같아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의 축제 · 기념일 백과, 류정아, 오애리, 김홍희, <https://terms.naver.com/>)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에 맞추어 전반을 중심으로 크게 회복하고, 후반까지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확산 이전 수준인 5,594만 톤까지 회복하고, 그 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25년에는 5,890만 톤, 2030년에는 6,09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생체 수송이 주요 수송 형태였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방지 대책으로 생체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변경이나 콜드체인(cold chain<sup>11</sup>)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앞으로 기존 시장에서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냉장 돼지고기 소비 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에는 35% 이상, 2030년에는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생산 회복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130만 톤까지 감소하고, 이후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여 2030년에는 120만 톤 이하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닭고기<sup>12</sup>

### 4.1. 2020년 동향

2020년 생산량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육돈의 감산과 닭고기에 대체 지향의 고조 등을 배경으로 고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늘어난 30.9%로 동 5.5% 늘어난 2,361만 톤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11)농산물 등의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수확한 다음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 및 운송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여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 농축수산물을 수확한 다음 저장과 운송 등의 유통과정을 통해서 최종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신선도와 품질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축수산물인 신선식품은 수확한 이후부터는 자연적으로 부패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선도가 저하되어 품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대상 신선식품의 온도를 낮춤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온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신선식품의 대사 작용이 줄어들어 부패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콜드체인 기술은 194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단순히 냉장고와 유사한 공간에 신선식품을 보관하여 운송하는 형태를 가졌다. 이후 온도 관리기술과 신선식품의 생리적 연구가 발달함에 따라 신선식품의 자체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예냉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콜드체인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농축수산물인 신선식품에 콜드체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신선식품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유통시킬 수 있게 되어 가격이 낮을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더 먼 지역까지 운송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신선식품의 시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효과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밭에서 수확하면 며칠 후에는 부패하여 상품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지만, 적절한 콜드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상품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몇 배나 늘어나게 되어 시장의 딸기 시세를 보아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딸기농장 주변에만 단기간 판매가 가능했지만,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선식품의 저장과 운송의 제약을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가져오지만,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정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고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여름철 냉방을 위해 다량의 전기를 이용하고 프레온 등의 유해물질을 생성하여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과 유사하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2)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産展望報告(2021-2030)を發表(鶏肉編)(中国)’ 2021년 7월 6일자 게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87.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87.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소비량도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에서 닭고기로 대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동 8.9% 늘어난 2,470만 톤으로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패스트푸드 등 외식 수요가 감퇴하는 한편,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등 소비 구조 변화가 보인다.

가격 면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에는 하락세로 추이 하였지만, 후반에는 비교적 안정되게 되었다. 닭고기의 연간 평균 가격은 동 0.4% 떨어진 1킬로그램 당 22.1위안(387엔, 3,870원: 1위안=17.5엔=175원)이었다.

수입량은 높아지는 국내 수요로 동 93.8% 늘어 사상 최고인 155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내역을 보면, 닭다리 수입 비율이 동 8%포인트 늘어난 34%로 증가하여 수입 닭고기 제품 중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되었다. 냉동 닭 날개는 동 7%포인트 낮아진 28%로 상당한 정도 감소하고 있다. 닭고기의 주요 공급국가는 브라질의 44.2%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태국 등이다.

## 4.2. 2021년 전망

2021년 생산량은 돼지고기 대체 수요를 배경으로 생산 규모 확대가 예측됨으로써 전년 대비 3.0% 늘어난 2,432만 톤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상반기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대체 수요의 지속이 예상됨으로써 동 0.6% 늘어난 2,484만 톤으로 전망된다.

가격 면에서는 전기를 중심으로 사료 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에 따라 닭고기는 상승세로 움직여 동 1.8% 오른 1킬로그램 당 22.5위안(394엔, 3,940원)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수입 식품 포장 재료에서 코로나19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 등이 영향을 주어, 동 35.5% 줄어든 100만 톤으로 대폭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 4.3. 2030년까지의 전망

생산량은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전반을 중심으로 증가하지만, 후반에는 돼지고기 생산 회복에 의한 대체 수요가 떨어지면서 증가율 둔화가 예측되며, 2025년에는 2,527만 톤, 2030년에는 2,555만 톤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소득 수준 향상과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저열량-고단백질과 같은 음식에 대한 건강 지향 고조 등 식육 소비 구조 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뺄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면에서는 다소의 상하 변동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료 가격이나 인건비 증가, 환경 대책이나 항생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가금 생산으로의 변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생산 회복에 따른 전반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70만 톤, 2030년에는 65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가금육 소비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30년 (전망)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생산량	1,982	1,994	2,239	2,351	2,432	3.0	2,555	0.1
수입량	약45만 톤	약50만 톤	80	155	100	- 35.5	65	0.0
수출량	약50만 톤	약50만 톤	51	46	48	4.3	57	1.8
소비량	-	-	2,268	2,470	2,484	0.6	2,563	0.0
1인당소비량	-	-	16.2	17.6	(17.6)	(0.2)	17.7	- 0.2

주 1: 2021년 1인당 소비량은 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시산

2: 2017, 2018년의 수출입량은 개략적인 수치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1-2030)을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鶏肉編)(中国)’ 2021년 7월 6일자에서 재인용

## 5. 사료13)

### 5.1. 옥수수

#### 5.1.1. 2020년 동향

2020년 옥수수 경작면적은 대두에 대한 전작(轉作)이 진행되어 4,126만 헥타르로 5년 연속 감소하였다.<sup>14)</sup> 주산지인 동북에서는 8월 말~9월 초까지 태풍이 발생하였지만 피해는 경미하였다. 다른 생산지에서는 날씨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단수는 1헥타르당 6.3톤, 생산량은 2억 6,067만 톤으로 모두 전년 수준이었다.

소비량은 생산량을 넘어서 2억 8,799만 톤(전년 대비 4.1% 증가)이었다. 용도별로 보면, 사료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서 회복됨에 따라 돼지 사육 마릿수가 증가

13)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飼料編)(中国)’ 2021년 6월 17일자 게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67.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67.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14)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6년에 공표한 ‘국무원에 의한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년)’에서 과잉 재고의 개선을 목적으로 옥수수 경작면적의 절감 목표가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자급률이 낮은 대두 등의 작물 전환이 추진되었다.

하여 1억 8,550만 톤(동 6.0% 증가)으로 상당한 정도 증가하여 옥수수 가격을 상승시켰다. 공업용은 코로나19 감염 확대<sup>15)</sup>와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콘 스타치(corn starch) 생산이 둔화된 반면, 소독용 에탄올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체로는 8,050만 톤(동 1.9% 증가)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식품용은 955만 톤(동 1.0% 증가), 종자용은 189만 톤(전년 수준)으로 모두 안정되었다.

수입량은 왕성한 국내 수요를 보완할 목적으로 1,12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최고치이며, 관세할당 물량<sup>16)</sup>을 처음 넘어섰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었다.

### 5.1.2. 2030년까지의 전망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에서 생산 의욕이 고취되고, 수급도 불안정한 상태여서, 2021년부터 정부의 증산 의지가 고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경작면적은 2021년에는 4,267만 헥타르로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0년에는 4,383만 헥타르로 2020년 대비 6.2% 증가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경작면적 증가와 함께 생산 기반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에<sup>17)</sup>, 2021년에는 2억 7,2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3억 3,171만 톤으로 2020년 대비 27.3% 증가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량은 2021년에는 2억 9,487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3억 3,192만 톤으로 2020년 대비 15.3% 증가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사료용은 단기적으로는 돼지 사육 마릿수가 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촌부의 식육 소비량 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2억 1,050만 톤으로 2020년 대비 13.5% 증가하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업용은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9,980만 톤으로 동 24.0% 증가할 전망이며, 식품용은 음식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1,063만 톤으로 동 1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자용은 경작면적 증가로 199만 톤으로 동 5.3% 증가하는 등, 2030년까지 용도별로 각각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 해당 영향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6일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 정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의 발생이 콘스타치 생산에 일시적인 영향을 준다.(중국)(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発生が、コーンスターチ生産に一時的な影響を与える(中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5.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5.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관세할당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세율은 킬터 720만 톤 내 1%, 킬터 외에서는 65%(종자용 제외)이다.

17) 가뭄에 강한 고수량으로 안정된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및 중국 국무원은 2020년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및 2022년 매년 고규격 농지를 1억 무(667만 헥타르)를 확보하고, 절수 관개시설을 1500만 무(100만 헥타르)증설하자고 제안하였다.

수입량은 2021년에는 2,0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7.1%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이 추세가 반영되어 전년에 비해 계속 증가하지만, 2030년에는 수입 물량 내 650만 톤으로 2020년 대비 42.4% 감소하는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율	2030년 (전망)	2020년대 비 증감율
경작면적 (만 ha)	4,240	4,213	4,128	4,126	4,267	3.4	4,383	6.2
단수 (톤/ha)	6.1	6.1	6.3	6.3	6.4	0.9	7.6	19.8
생산량 (만 톤)	25,907	25,717	26,077	26,067	27,200	4.3	33,171	27.3
수입량 (만 톤)	283	352	479	1,129	2,000	77.1	650	- 42.4
소비량 (만 톤)	-	-	27,669	28,799	29,487	2.4	33,192	15.3
사료용 (만 톤)	-	-	17,500	18,550	19,107	3.0	21,050	13.5
공업용 (만 톤)	-	-	7,900	8,050	8,200	1.9	9,980	24.0
식품용 (만 톤)	-	-	946	955	965	1.0	1,063	11.3
종자용 (만 톤)	-	-	189	189	195	3.2	199	5.3
저장로스 (만 톤)	-	-	1,134	1,055	1,020	- 3.3	900	- 14.7

주: HS 코드 100590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1-2030」을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发表(飼料編)(中国)’ 2021년 6월 17일에서 재인용

## 5.2. 대두

### 5.2.1. 2020년 동향

2020년 콩 경작면적은 988만 4,000헥타르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단수도 늘어 생산량은 과거 최고인 1,961만 톤으로 동 8.3% 증가하였다(표 6).

소비량은 생산량을 넘어서 1억 1,730만 톤(동 14.8% 증가)이었다. 용도별로 보면, 착유용은 양돈용이나 가축용 사료 수요가 증가<sup>18)</sup>하는 등으로 동 17.1% 증가하는

18) 양돈용이나 가축용 사료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21년 6월호의 ‘急

등 크게 늘어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식용은 2020년 당초에는 코로나19에 의한 외출 제한의 영향으로 수요는 부진하였지만, 코로나19 수습에 따른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소비자가 양질의 단백질을 요구함으로써 등 2.8%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왕성한 국내 수요를 보완할 목적으로 1억 33만 톤이 수입되어 등 13.4% 증가하는 등 상당히 크게 늘면서 1억 톤을 돌파하였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브라질로 점유율은 64.1%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은 등 25.8%, 아르헨티나는 등 7.4%를 기록하였다. 러시아에서는 69만 톤의 대두가 수입되었다.

한편, 수출물량은 전년보다 약 3만 톤 줄어든 7만 톤이 되었고, 주요 수출 파트너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였다.

<표 6>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율	2030년	2020년대 비 증감율
							(전망)	
경작면적 (만 ha)	824	841	933	988	935	- 5.4	937	- 5.2
단수 (톤/ha)	1.85	1.90	1.94	1.99	1.99	0.5	2.24	12.9
생산량 (만 톤)	1,528	1,597	1,810	1,961	1,865	- 4.9	2,087	6.4
수입량 (만 톤)	9,554	8,808	8,859	10,033	10,250	2.2	11,014	9.8
소비량 (만 톤)	-	-	10,219	11,730	11,813	0.7	12,689	8.2
착유용 (만 톤)	-	-	8,445	9,885	9,930	0.5	10,462	5.8
식품용 (만 톤)	-	-	1,396	1,435	1,465	2.1	1,751	22.0
종자용 (만 톤)	-	-	78	80	80	0.0	81	1.3
저장로스 (만 톤)	-	-	300	330	338	2.4	395	19.7
수출량 (만 톤)	-	-	11	7	8	14.3	16	128.6

주: HS 코드 1201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1-2030」, 「Global Trade Atlas」를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飼料編)(中国)’ 2021년 6월 17일에서 재인용

速に回復する中国養豚業の実態’ (<https://www.alic.go.jp/content/001192239.pdf>) 및 2020년 5월호의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し’ (<https://www.alic.go.jp/content/001177636.pdf>)를 참조하기 바란다.

## 5.2.2. 2030년까지의 전망

대두 경작면적은 2021년에는 934만 7,000헥타르로 전년 대비 5.4% 감소하는 수준으로 다소 감소가 전망되며, 이후 약간 증가 추세를 보여 2030년 937만 1,000헥타르로 전망된다. 단수는 증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021년 생산량은 1,865만 톤으로 동 4.9%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2,087만 톤으로 예상된다.

불안정 요소로는 주산지인 헤이룽장 성(흑룡강성)의 가뭄과 서리, 태풍 등의 빈발, 안후이 성(안휘성), 허난 성(하남성)에서의 뿌리썩음병(根腐病) 다발 등 재해 요인과 더불어 대두에서 옥수수로 작물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 등의 정책 요인이 꼽힌다.

소비량은 2021년에는 계속해서 생산량을 넘어서 1억 1,813만 톤으로 동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과 비교하여 소비 증가가 억제되는 요인으로는 돼지 사육 마릿수 회복에 따른 사료 수요가 증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사료로서의 콩깻묵에서 다른 원료로의 대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sup>19)</sup>, 또 식물성 기름 가격 상승 등이 꼽힌다. 2030년에는 착유용 수요가 낮아지고 식용 수요가 증가하여 1억 2,689만 톤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2021년에는 1억 250만 톤으로 동 2.2% 증가하는 등 계속 1억 대를 유지하면서 향후 10년간 1억 톤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총량으로는 적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이다.

불안정 요소로는 미·중 무역 마찰이나 러시아의 수출 관세 인상, 코로나19에 의한 물류 정체 등이 꼽힌다.

## 5.3. 사료

### 5.3.1. 2020년 동향

2020년의 사료<sup>20)</sup> 총생산량은 2억 5,27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그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2019년에 감소되었던 양돈용 사료 생산량은 돼지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8,874만 톤으로 동 16.3% 증가하는 등 크게 증가하였다.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증산된 식용가금 사료 생산량은 9,102만 톤으로 동 8.2% 증가하여, 2년 연속 양돈용 사료 생산을 웃돌았다.

사료 수입량에 대해 살펴보면, 돼지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옥수수과 옥수수 대체 곡식인 보리와 고량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표 7). 그 중에서도 옥수수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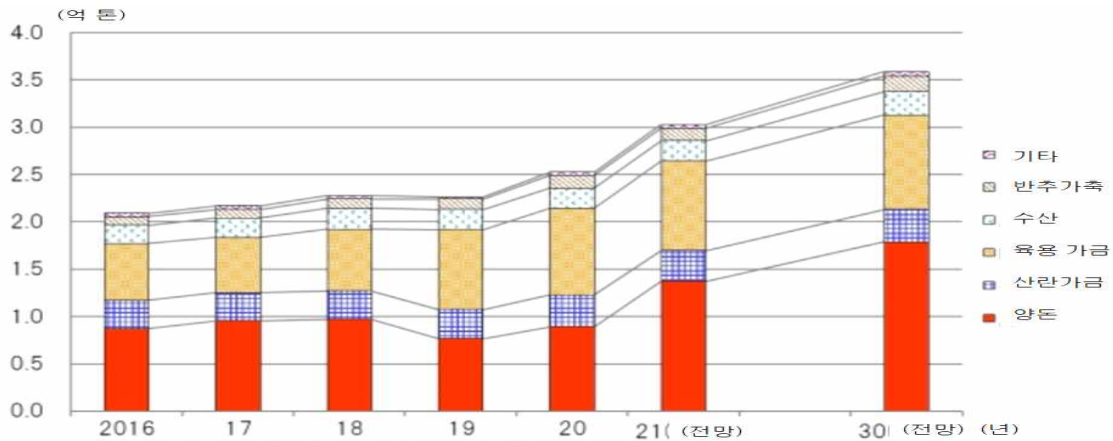
19)대두박 가격 상승과 정부의 기술 지침 등 지원 등에 의해, 대두박에서 어분이나 유채유를 짠 찌꺼기 등의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20)사료에는 프리믹스, 농후사료, 배합사료가 포함된다.

은 과거 최대인 1,129만 톤으로 동 135.8% 증가하였다. 단백질 원료에 대해서는 대두 수입량이 동 13.3% 증가하여 약 5배인 5만 6,800톤이 되었다.

사료 수입 대상국가는 브라질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다. 그 해는 미·중 경제 무역 협정의 1차 합의로 미국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림1> 축종별 사료 소비량 동향과 전망



주: 2016-2020년의 수치는 생산량임.

자료: 중국사료공업협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29」를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을發表(飼料編)(中国)’ 2021년 6월 17일에서 재인용

<표 7> 사료원료 수입 동향

(단위: 만 톤, %)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율
에너지원	옥수수	479.0	1,129.4	135.8
	보리	592.8	807.9	36.3
	고량	83.2	481.4	478.5
	DDGS	14.1	18.2	29.2
단백질원	대두	8,855.0	10,032.7	13.3
	대두박	1.0	5.7	495.3
	채종	273.7	311.4	13.8
	채종박	158.1	188.6	19.3
	어분	142.0	142.1	0.0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1-2030」를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을發表(飼料編)(中国)’ 2021년 6월 17일에서 재인용

### 5.3.2. 2030년까지의 전망

사료 총생산량은 2021년에는 돼지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3억 566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하는 등 대폭 증가가 전망된다. 용도별로 보면, 양돈용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1억 3,755만 톤으로 동 55.0% 증가할 전망이며, 식용 가금용은 굳건한 수요로 9,485만 톤으로 동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추가축, 수산용도 증가가 전망되지만, 산란 가금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sup>21)</sup>

전망 기간 중 후반에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2030년 사료의 총생산량은 3억 6,244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 중 양돈용 수요는 1억 7,869만 톤, 식용 가금용은 9,965만 톤, 반추가축용은 1,605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료 수요는 계속되지만, 국산 원료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국외 시장에서 조달할 필요가 생기는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가운데 많은 나라가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무역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요 사료 수입에 대해서는 불안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21)산란 가금용은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의 대체 소비가 늘어 2019년에는 가금란이 증산된다는 점에서 동 사료도 증산하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가금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이 저하하여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결과, 이 사료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록> 중국의 곡물 생산 목표<sup>22)</sup>

### 중국, 2021년의 곡물 생산 목표를 발표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1년 3월 3일 그 해의 곡물 생산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는 2021~2025년 국가 경제 계획인 ‘국민경제·사회 발전 1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옥수수 경작 면적을 전년보다 약 67만 헥타르<sup>23)</sup> 이상 확대시키는 동시에 대두 생산 안정화도 도모함으로써 곡물 총 경작면적을 약 1억 1,667만 헥타르 이상이라며, 6억 5,0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부표).

<부표1> 주요 곡물 경작면적 및 생산량 추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목표 (2016년 시점)	2021년 목표 (2021.3월 시점)
총경작면적(천ha)	119,230	117,989	117,038	116,064	116,768	-	116,567이상
쌀	30,746	30,747	30,189	29,694	30,076	-	-
밀	24,666	24,478	24,266	23,728	23,380	-	-
옥수수	41,284	42,130	42,399	44,178	41,264	33,333	41,931
대두	7,599	8,245	8,413	9,330	9,864	9,333	-
총생산량(만 톤)	66,044	66,161	65,789	66,384	66,949	55,000 <sup>2)</sup>	65,000
쌀	21,109	21,268	21,213	20,961	21,186	자급률 100%	-
밀	13,319	13,424	13,144	13,360	13,425	자급률 100%	-
옥수수	26,361	25,907	25,717	26,078	26,067	-	-
대두	1,360	1,528	1,597	1,729	1,959	-	-

주 1: 총 경작면적 및 총생산량에는 쌀, 밀, 옥수수, 대두 이외의 작물도 포함됨.

2: 2020년 목표치는 총생산량에서 두류 생산량을 제외한 것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농업농촌부, 중국국무원,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년)」, 농축산업진흥기구, ‘2021年の穀物生産目標を發表(中国)’, 海外情報, 2021년 3월 11일에서 재인용

중국 정부는 옥수수 잉여 재고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대두 등 다른 품목으로 생산 전환을 독려하여 왔다.<sup>24)</sup> 이 때문에 ‘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6년에

22)이 부분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2021年の穀物生産目標を發表(中国)’, 海外情報, 2021년 3월 11일 게재([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00.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00.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23)원문의 ‘무’ 표기를 헥타르로 환산(1무=0.667아르), 이하 같다.

24)옥수수 재고 소진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17년 1월호의 ‘중국

정해진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년)’에서는 옥수수 경작 면적을 2015년 약 3,800만 헥타르에서 2020년에 약 3,333만 헥타르로 삭감하는 한편, 대두 경작면적을 2015년 약 653만 헥타르에서 2020년에 약 933만 헥타르로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2019년 하반기 이후 돼지 등 가축 증두에 의한 사료 원료인 옥수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부족한 수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에는 과거 최고인 1,129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였지만, 국산 옥수수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기 옥수수 경작 확대 면적인 약 67만 헥타르를 전년도 단수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면 약 421만 톤의 생산 증가에 해당한다.

---

의 사료 수급 동향~곡물 정책 변경과 자료 수급을 둘러싼 상황.’ (‘中国の飼料需給動向- 穀物政策の変更と資料需給をめぐる現状-’, <https://www.alic.go.jp/content/000132729.pdf>) 또는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http://www.krei.re.kr:18181/board/newdata/view/wr\\_id/5137/page/8](http://www.krei.re.kr:18181/board/newdata/view/wr_id/5137/page/8))을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18181/board/newdata/view/wr\\_id/5137/page/8](http://www.krei.re.kr:18181/board/newdata/view/wr_id/5137/page/8))
-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중국 양돈업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4호(2021년 8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海外情報-「畜産の情報」 2021年 8月号
- 농축산업진흥기구,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中国牛肉産業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2021년 2월호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6.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6.html))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中經濟貿易協定第1段階合意の進捗に関する中間報告(中国)’,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1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11.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乳製品編)(中国)’ 2021년 7월 12일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豚肉編)(中国)’ 2021년 7월 6일([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86.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86.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鶏肉編)(中国)’ 2021년 7월 6일([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87.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87.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中国農業展望報告(2021-2030)を發表(飼料編)(中国)’ 2021년 6월 17일([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67.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67.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 정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이 콘스타치 생산에 일시적인 영향을 준다.(중국)(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発生が, コーンスターチ生産に一時的な影響を与える(中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5.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5.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急速に回復する中国養豚業の実態’ 2021년 6월호 (<https://www.alic.go.jp/content/001192239.pdf>)
-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し’ 2020년 5월호(<https://www.alic.go.jp/content/001177636.pdf>)
- 농축산업진흥기구, ‘2021年の穀物生産目標を發表(中国), 海外情報, 2021년 3월 11일([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00.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00.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중국의 사료 수급 동향~곡물 정책 변경과 사료 수급을 둘러싼 상황.’ (‘中国の飼料需給動向- 穀物政策の変更と資料需給をめぐる現状-’, 2017년 1월호(<https://www.alic.go.jp/content/000132729.pdf>))

중국 유업협회, 「중국 유업 품질보고서(2020)」, 2021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29」,  
「농업전망보고 2019-2028」  
「농업전망보고 2017-2026」  
중국국무원,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년)」

「Global Trade Atlas」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의 축제 · 기념일 백과, 류정아, 오애리, 김홍희,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고정오, <https://terms.naver.com/>)